

디지털기록유산 평가·수집 모형에 대한 연구*

캐나다 'Whole-of-Society 접근법'을 중심으로

박 지 애** · 임 진 희***

1. 머리말
 -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 2) 선행연구
2. LAC의 'Whole-of-Society 접근법'의 특징
 - 1) 'Whole-of-Society 접근법'의 출현과 의미
 - 2) 'Whole-of-Society 접근법'의 기본 개념과 구성 요소
3. 'Whole-of-Society 접근법'에 따른 평가·수집 프레임워크
 - 1) 평가·수집 절차와 방법
 - 2) 'Out of the Trenches' 프로젝트 사례
4.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 1) 사건·인물 기반 기록유산 평가·수집 가이드라인 개발
 - 2) 가이드라인 실행을 위한 선행과제 제언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15년 2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정보학 석사논문을 요약·정리한 것임.

** 박지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자원팀(제1저자).

*** 임진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정보전문대학원 교수(교신저자).

■투고일 : 2015년 3월 15일 ■최초심사일 : 2015년 3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5년 4월 12일.

[국문초록]

기록평가의 목적은 점차 기록의 선별에서 일종의 주제기반의 수집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현재의 디지털 기술과 웹의 양·질적 발달은 물리적 수집이 아닌 의미적 수집, 즉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유네스코를 필두로 국제적으로 ‘기록유산’에 대한 개념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캐나다의 LAC인데, 최근 토달아카이브즈 정신을 부흥시키고자 새로운 평가방법이자 수집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것이 ‘Whole-of-Society 접근법’¹⁾이다. 이 접근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기록유산을 대상으로 하며, 물리적 수집이 아니라 의미적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그 대상이 기록유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유산기관 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록화뿐만 아니라 동시대적 사건에 대한 기록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평가방법으로서의 ‘Whole-of-Society 접근법’은 사회이론에 착안하여 사회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방식이다. 수집방법으로서의 ‘Whole-of-Society 접근법’은 디지털기록을 대상으로 하나, 아날로그기록의 소장주체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그 대상이 확장된다. 이때의 디지털기록이란 ‘디지털화된(Digitized)’ 기록유산과 ‘본래 디지털인(Born-Digital)’ 기록유산을 포함한다.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 식별한 사회 구성요소를 메타데이터 요소로 매핑한 다음, 링크드 오픈 데이터로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간의 연계를 통한 의미적 수집을 실현한다.

1) Whole-of-Society 접근법을 번역하자면 사회전체를 기록화하기 위한 모델, 혹은 전사회적 접근법인데, 이하 내용의 전개상에서 ‘사회의 기록화’라는 목적과 구분하기 위하여 번역하지 않고 Whole-of-Society 접근법이라고 그대로 사용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 평가체계는 그 목적이 선별에 비교적 국한되어 있어 사회의 기록화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Whole-of-Society 접근법을 적용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총 8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부터 4단계는 기록화 대상의 선정과 기술이며 5단계부터 8단계는 디지털 환경에서 의미적 수집을 위한 준비절차라 할 수 있다. 한편 가이드라인의 실행을 위한 선행과제를 점검하며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촉구한다.

주제어 : 기록평가, 기록수집, 사회의 기록화, Whole-of-Society 접근법, 의미적 수집, 디지털 환경, Linked Open Data

1. 머리말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의 기억’²⁾ 사업을 설립한 것에 이어 2012년 9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브리티시콜럼비아대학교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세계기록유산: 디지털화와 보존’³⁾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밴쿠버선언⁴⁾에서는 전자정부, 아

2)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이란 기록유산의 목록을 칭한다. 그 범위는 전 세계이며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록이라 칭하는 문서류 외에도 도서, 신문, 포스터, 지도, 음악, 오디오, 비디오 등을 모두 포괄한다.

3) 주제의 국문 번역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에서 번역한 국문 명칭을 따랐다. British Columbia, *The Memory of the World in the Digital age: Digitization and Preservation*, British Columbia: Canada, 2012 September, pp.26-28.

4) UNESCO/UBC Vancouver Declaration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CI/CI/pdf/mow/unesco_ubc_vancouver_declaration_en.pdf [인용 날짜: 2014. 11. 4].

날로그기록유산의 디지털화, 디지털로 생산된 기록유산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보존, 기록유산의 접근성 보장, 아카이브즈, 도서관, 박물관 등 정보전문가 집단 간의 협력 등을 주요 기제로 하여 실행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디지털 환경하에서 발생하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현안들이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기록유산의 존재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반증이다. 또한 이와 함께 국제기록관리 협의회, 국제도서관연맹의 합의는 기록관의 기록, 도서관의 도서, 그리고 박물관의 박물관⁵⁾을 모두 광범위한 의미에서 '기록유산'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모두 사회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활동의 산물로서 중요한 정보자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록유산의 보존과 접근성 보장을 위해 선행 되어야 하는 고민은 후대에 전승하여 우리 사회를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평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다음의 이유로 기록관리 업무에 있어 앞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데 근거가 되는 평가업무는 핵심적이다. 첫째,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아날로그기록의 경우 보존공간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며, 디지털기록은 공간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IT 전문인력, 스토리지 등에 큰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둘째, 기록을 이용함으로써 보존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기준이나 판단에 의한 선별·수집, 그리고 정리가 필요하다. 디지털기록도 아날로그기록과 마찬가지로 검색도구나 접근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접근성이 저하되어 기록의 존재가치도 사라질 수 있다.

결국 기록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대한 양의 기록 중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려내고 보존하여 후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판단은 기록의 보존비용이나 접근효율성

5) 다만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의 박물관 중 기록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한정한다.

과는 별개로 관점에 따라 다양한 답이 도출될 수 있어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록평가이론의 전개 흐름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요 연구동향과 기록관리 선진국의 기록평가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알 수 있다. 20세기 현대기록학에서 주요 평가이론의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주체, 평가목적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평가이론 속성의 변화

시대구분	1920년대	1950~1960년대	1970~2000년대
대표학자	젠킨슨 (생산자중심평가론)	셀렌버그 (가치평가론)	봄스, 사무엘스, 쿡 (거시평가관점)
평가대상	공공기록	공공기록	공공기록, 민간기록
평가기준	기록을 생산한 목적	기록이 지닌 가치	사회상 반영 여부
평가주체	생산자	아키비스트	아키비스트
평가목적	선별	선별	선별·수집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기록학의 평가이론은 모두 공공기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기록을 평가하는 기준이 기록을 생산한 목적에서 기록이 지닌 가치로, 다시 사회상의 반영 여부로 변화해옴에 따라 평가대상이 점차 민간기록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인다. 다음으로 기록의 평가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생산자가 아니라 아키비스트임에 동의하는 것과 함께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기록평가의 궁극적 목적이 증거로서의 기록을 선별하는 것에서 집단적 기억을 구축하거나 사회상을 반영하는 기록의 수집을 위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기록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흐름이 기록평가이론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는 아

널지라도 아키비스트로서 주목해야 할 부분임은 분명하다. 많은 아키비스트들과 학자들이 사회와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며 앞에서 정리한 기록평가와 관련된 추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에서 구체적인 실무지침이나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서 아키비스트가 기록평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무엇을 실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 국립도서관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Canada, 이하 LAC라고 칭한다)⁶⁾에서는 토탈아카이브즈 부흥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캐나다의 움직임은 앞에서 다룬 평가이론의 동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을 통해 기록유산(Documentary Heritage)이라 함은 캐나다에 중요한 간행물과 기록물을 포함한다고 천명하였다.⁷⁾ 사실상 공공기록을 대상으로 수행되던 거시평가방법론으로는 캐나다 고유의 토탈아카이브즈 정신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Whole-of-Society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디지털 환경에서 평가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수집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살펴본 평가이론의 흐름에 등장하는 이론들은 전통적 의미의 기록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 평가이론에서도 기능평가와 더불어 내용에 대한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으므로⁸⁾, 도서와 박물관 역시 사회의 기록화에 필수적인 정보자원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록의 거시평가방법론이나 도서관과 기록관의 통합 운영 등으로 국내 기록학계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캐나다가 새롭

6) 2004년 캐나다국립기록관(National Archives of Canada)와 캐나다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anada)는 캐나다국립도서관기록관법(Library and Archives Canada Act)에 의하여 합병되었다. 두 기관 모두 캐나다 지식자원의 원천이자 정부의 지속적 기억(Continuing Memory)를 저장하며 후대에 전승할 캐나다 기록유산(Documentary Heritage)의 수집, 보존, 전파에 책임이 있다.

7)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Definitions. <Assented to 2004-04-22>.

8) F. Gerald Ham 저,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게 채택한 평가·수집 전략이라는 점에서 Whole-of-Society 접근법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의 기록유산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등 모든 유형의 기록, 도서, 박물관을 포괄하는 총체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논문의 목적은 Whole-of-Society 접근법상에서 설명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유산 평가방법과 수집방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록유산’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수집을 위한 사례는 전무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실현을 위한 선행과제를 점검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Whole-of-Society 접근법을 평가와 수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되어 구현되는지 알아보았다. 주로 LAC 공문서와 이를 다룬 학자들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평가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LAC에서 송부한 문건을 중심으로 사회이론을 적용하여 해석하고, 문건상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방법과 주요 요소를 도출하였다. 수집 방법의 경우 LAC에서 수행한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2) 선행연구

이 연구에서는 평가의 궁극적 목적을 기록의 수집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 캐나다에서 ‘사회 전반의 기록화’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⁹⁾하의 평가·수집 방법을 다룬다. LAC의 Whole-of-Society 접근법의 핵심을 키워드로 나누면 ‘사회의 기록화’, ‘기록유산기관 간

9) 본 연구에서 다루는 ‘디지털 환경’이란, 기존의 데스크톱을 도구로 문서작성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록을 생산하며 시작된 초·중반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나아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록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재의 웹기반 환경을 칭한다.

의 협력', '수집도구로서의 링크드 오픈 데이터(Linked Open Data, 이하 LOD라 칭한다)'라 할 수 있다. 이에 각 키워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캐나다의 평가체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 경우 캐나다 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ook(2011)의 연구¹⁰⁾는 그간 거시평가방법론 등 정부에서 행해지던 기록평가가 민간기록이나 수집의 의미를 간과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의 디지털 환경하에서 생산되는 기록과 수많은 상호작용들을 놓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Cook은 이러한 상황을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수집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Whole-of-Society'나 '토탈아카이브즈'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Caron · Brown(2011)의 연구¹¹⁾에서는 기록유산 획득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특히 디지털 환경하에서 의도적으로 획득을 염두에 두지 않고 평가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며 '기억'의 보존을 강조했다. '기억'의 보존은 곧 사회의 기록화를 위한 기록유산의 식별과 보존을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전문가라 할 수 있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앞서 Cook의 2005년 연구에서는 캐나다 거시평가방법론의 대두배경과 현황, 그리고 한계점을 다루었다면, Caron · Brown(2013)의 연구¹²⁾에서는 거시평가방법론의 한계, 캐나다에서의 정보관리위기, 기록관리지침 시행에 이르는 Whole-of-Society 접근법의 대두 배경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전 사회의 투영물인 기록유산의 의미를 확인하고 디지털 환경

10) Terry Cook, "We Are What We Keep; We Keep What We Are' - Archival Appraisal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32(2), 2011.

11) Daniel J. Caron and Richard Brown, "The Documentary Moment in the Digital Age - Establishing New Value Propositions for Public Memory", *Archivaria* Vol.71, 2011.

12) Daniel J. Caron and Richard Brown, "Appraising Content for Value in the New World - Establishing Expedient Documentary Presence", *The American Archivist* Vol.76(1), 2013.

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방법인 Whole-of-Society 접근법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캐나다에서 ‘기록유산기관’이라 칭하는 아카이브즈, 도서관, 박물관 간의 협력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았다. 서혜란(2005),¹³⁾ 박성진(2009),¹⁴⁾ 조윤희(2008)¹⁵⁾는 아카이브즈,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공통적인 사명이 있음을 인정하고 각 기관들의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협력의 의의에 디지털 환경을 접목시켜 더욱 실현가능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이소연(2012),¹⁶⁾ 광건홍(2013)¹⁷⁾은 각각 이들을 ‘문화유산기관’, ‘기억기관’으로 규정하고 협력에 있어 디지털 환경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LOD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 본 결과 LOD 구축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카이브즈, 도서관, 박물관의 통합적인 LOD 구축을 위해서는 각 표준에서 명시하는 메타데이터 요소 간의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아카이브즈, 도서관, 박물관의 표준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박지영(2008)¹⁸⁾의 연구에서는 FRBR¹⁹⁾ 모형을 CRM²⁰⁾ 기반

13) 서혜란,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2005쪽.

14) 박성진, 「근대 공문서 소장 현황과 협력 과제: 박물관·기록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2008쪽.

15) 조윤희,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문화유산기관 협력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2008쪽.

16) 이소연, 「함께 만드는 미래: 디지털 융합과 문화기관의 협력」, 『정보관리학회지』 29(3), 2012쪽.

17) 광건홍,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 비교 연구」, 『기록학연구』 36, 2013쪽.

18) 박지영, 「문화유산 자원 통합 활용을 위한 CRM 기반 FRBR 응용 온톨로지 적용에 관한 연구: FRBRoo를 중심으로(object-oriented FRBR)」,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2008쪽.

19)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컴퓨터가 디지털 목록 레코드를 탐색하여 그 결과를 계층적인 순서로 제시하도록 개발된 개념적인 모형. 「도서관용어해설」, 『지금 도서관에서는』 1, 2008.

으로 재구조화하여 통합한 온톨로지인 FRBRoo²¹⁾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김정심 외(2010)²²⁾의 연구에서는 ISAD(G), MODS,²³⁾ RAD,²⁴⁾ CDWA²⁵⁾를 중심으로 각 요소를 설명하고, 이들 중 맥락 정보, 형태적 특징,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기록으로서의 행정박물이라는 특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였다. 이해원(2013)²⁶⁾의 연구에서는 아카이브즈의 전거표준인 ISAAR(CPF)와 EAC-CPF와 도서관의 전거표준인 FRAD²⁷⁾의 공통점을 들어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 20) CIDOC Conceptual Reference Model, 문화유산 참조 온톨로지. CRM은 여러 문화유산 정보의 통합, 연계, 교환을 증진시키기 위한 형식 온톨로지로서 2006년에는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 박지영, 「문화유산 자원 통합 활용을 위한 CRM 기반 FRBR 응용 온톨로지 적용패 관한 연구: FRBRoo를 중심으로(object-oriented FRBR)」,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2008.
 - 21) Object oriented FRBR, FRBRoo는 기존의 FRBR 모형의 서지개체와 관계를 CRM의 개념과 속성에 맞게 분석하여 구축한 연계 온톨로지이다. 이 모델은 기존요소 매핑을 통한 연계와 달리 참조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FRBR 모형을 재구성한 것이다. 위의 글.
 - 22) 김정심 외, 「국가행정박물 관리를 위한 기술요소확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41(1) 2010.
 - 23) 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MODS는 미국의회도서관의 네트워크 개발 표준 부서에서 개발한 서지 기술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는 XML의 하나이다. 이 사용자가 웹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대 목적으로 한다. 위의 글.
 - 24)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캐나다의 국가 표준 기술규칙으로 일반 기술규칙과 각 매체별로 적용시킬 수 있는 매체별 기술규칙이 구분되어 있다. 위의 글.
 - 25) 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 AHIP(Getty Art History Information Program)와 CAA(College Art Association)의 후원 아래, AITF(Art Information Task Force)가 개발한 것으로 예술 작품에서 기술 범주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글.
 - 26) 이해원, 「기록관과 도서관 전거체계 비교 및 상호운용성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2013.
 - 27)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FRBR 제1집단, 제2집단, 제3집단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에 대한 전거데이터 구축 프레임워크인 FRAD를 함께 제시하였다. FRAD는 도서관을 비롯하여 박물관, 기록관에 속할 수 있는 전거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위의 글.

2. LAC의 ‘Whole-of-Society 접근법’의 특징

1) ‘Whole-of-Society 접근법’의 출현과 의미

캐나다에서 정보관리라는 용어는 곧 기록관리를 의미하는데, 2009년 캐나다 정부는 ‘정보관리위기(Informational Management Crisis)’를 선언하였다. 정보관리위기는 지식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고 증거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갖는 기록이 수집되지 않는 데서 기인하였다. 따라서 기록평가방법론으로 인한 한계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해야만 하는 이슈였다.²⁸⁾ 특히 정보관리전략의 일환으로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과 이용자들의 변화된 기대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고자 마련한 것이 2009년 7월 발효된 기록관리 지침(Directive on Recordkeeping)이다. 이 지침에서는 기록은 정부의 정책결정을 지지해 주고 캐나다 국민을 위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필수적인 업무자산과 지식자원이며, 기록관리(Recordkeeping)란 기록이 생산·획득·관리됨으로써 설명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⁹⁾ 기록관리지침의 시행을 계기로 주요정부부처에서만 적용해온 기록관리정책을 정부의 모든 조직에 적용하는 동시에 기록을 모두 정보자원으로서 개발하고자 하였다. 캐나다의 새로운 기록관리지침은 거시평가방법론의 폐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거시평가방법론은 캐나다의 평가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현재 일어나는 움직임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LAC가 나아갈 방향을

28) Li Xie, *The Nature of Record and the Information Management Crisis in the Government of Canada - A Grounded Theory Study*, A Thesis of Doctor,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04.

29)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Directive on Recordkeeping*, 2009.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거시평가방법론의 이론적 개념이나 방법론은 지속되고 있으나 새로운 기록관리지침으로 통합되고 있다. 결국 기록관리지침도 공공기록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으며, 역사적 가치보다 지속적·업무적 가치를 중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LAC는 도서관계의 맥코믹(Paul McCormick)과 기록학계의 쿡(Terry Cook)이 수행한 보고서³⁰⁾를 기반으로 LAC 현대화 혁신 이니셔티브(LAC Modernization Innovation Initiatives, 이하 MII)을 수립했다. 기존에 논의되던 전자기록 형태를 더욱 확대하여 SNS, 전자메일 기록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고자 실무차원의 논의를 한 것이다.

MII는³¹⁾ 5가지 원리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캐나다 기록유산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아카이브즈, 도서관, 박물관, 역사학회, 대학 등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이며, 두 번째는 캐나다 사회 전반을 대표하는 기록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 하는 것, 세 번째는 소장기록들에 대한 기술을 보다 쉽고 관련 있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것, 네 번째는 아날로그기록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록까지도 보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LAC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 제시되어 있는 MII의 특징은 크게 협력, 수집, 디지털 환경, 이용의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LAC는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를 위하여 협력 모델을 추구한다. 기록유산의 범위를 더욱 넓혀, 아카이브즈, 도서관, 박물관, 대학 등과 그 독점적 지위와 책임을 공유하며 범국가적 기록유산 네트워크(Pan-Canadian Documentary Heritage Network, 이하 PCDHN이라 칭한다)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평가의 목적이 선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별을 통한 수집

30) LAC, *Modernization: Building Relationships for the Future Library and Archives Canada Response to Recommendations from the McCormick and Cook Reports*, LAC, 2009.

31) <<http://www.bac-lac.gc.ca/eng/about-us/modernization/Pages/Initiatives.aspx>> [인용 날짜: 2014. 9. 9].

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앞서 확인한 평가이론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Whole-of-Society’ 라는 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기록유산이 어떻게 캐나다 전체의 사회상을 나타낼 것인지, 어떤 기관이 기록유산을 소장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이상의 내용을 미루어볼 때, MII를 통해 LAC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하에서 캐나다 전반에 산발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기록유산을 수집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LAC가 개발하고자 하는 새로운 평가·수집 방법인 ‘Whole-of-Society 접근법’은 공공기록뿐만 아니라 민간기록까지 포괄함으로써 토탈아카이브즈 정신을 실현하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을 통해 LAC는 기록을 평가하는 동시에 수집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기록평가의 성과를 이용으로 직결시키는 실제적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Whole-of-Society 접근법’의 기본 개념과 구성 요소

Whole-of-Society 접근법은 ‘2011-2012년 계획 및 우선과제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³²⁾에서 ‘캐나다의 지속적 기억은 기록화 되어야 하며 후대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처음 언급되었다.³³⁾ 또한 ‘2013-2014년 계획 및 우선과제에 대한 보고서’³⁴⁾에서도 첫 번째 우선과제로서 ‘정보자원 평가·수집’ 책임을 수행하는 도구로 나타나 있다. LAC가 기대하는 Whole-of-Society 접근법의 역할은 두 가지이다. 캐나다 사회를 기록화할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 다음으로 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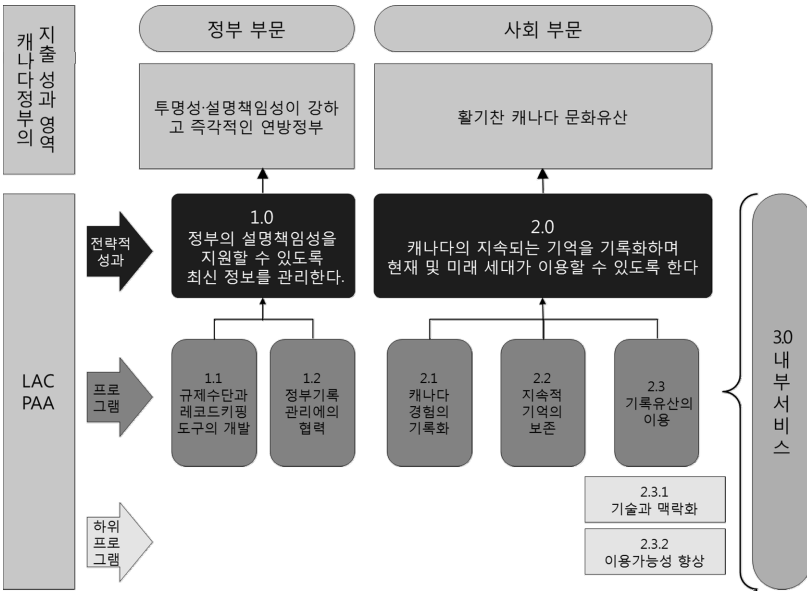
32) LAC, *Library and Archives Canada Plans and Priorities Report 2011-2012*, LAC, 2010.

33) LAC,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 2011-12*, LAC, 2012.

34) <<http://www.bac-lac.gc.ca/eng/about-us/report-plans-priorities/rpp-2013-2014/Pages/rpp-2013-14.aspx>> [인용 날짜: 2014. 9. 14].

다 기록유산네트워크 간의 통합된 컬렉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1〉 LAC 전략적 성과와 프로그램 정렬 아키텍처



* 출처: <http://www.tbs-sct.gc.ca> < cited. 2014.9.14. >

Whole-of-Society 접근법은 캐나다의 정책 실행 구조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렬 아키텍처(Program Alignment Architecture, 이하 PPA라 칭한다)³⁵⁾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캐나다 정부의 지출-성과영역은

35) PAA는 캐나다 각 부처가 그들의 목표, 임무, 비전, 기능을 천명하고 이들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Program)를 정부의 지출과 성과 영역을 연결 짓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각 부처는 PAA를 통해서만 업무 성과와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설명책임성을 높이고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Whole-of-Government 프레임워크로 설명되며 이는 경제부문, 사회부문, 정부부문, 국제부문인데, LAC의 경우 정부부문과 사회부문에 책임이 있다.

먼저 공공기록과 관련되어 있는 LAC의 전략적 성과 1.0은 ‘정부의 설 명책임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신 정부정보를 관리한다.’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LAC는 ‘레코드키퍼링 도구의 개발’과 ‘정부기록관리 협력’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사회의 기록화’, 즉 공공기록과 민간기록관리를 아우르는 사회부문의 LAC의 전략적 성과 2.0은 ‘캐나다의 지속되는 기억을 기록화하며 현재 및 미래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며 이와 매핑되어 있는 프로그램 2.1은 ‘캐나다 경험의 기록화’이다. 이는 LAC의 임무 중 하나로, 정부기록에서 나아가 민간기록에까지 미치는 수집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민간기록의 수집은 토털아카이브즈로 나아가기 위한 보장책이다.³⁶⁾ 다시 말해 캐나다 사회를 대표하는 어떤 양상을 기록화 함에 있어 정부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수집만으로는 사회의 기록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정부 외의 다른 출처에서 생산된 기록을 수집함으로써 사회의 기록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하에 LAC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캐나다 기록유산에 대한 평가·수집 과정에 Whole-of-Society 접근법을 개발하여 적용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Whole-of-Society 접근법은 기록의 내용을 우선시한다. 평가·수집의 대상은 지속적 가치를 갖는 정부의 정보자원과 정부 외의 출처로부터 생산된 관련 있는 정보자원이다. LAC는 이 접근법을 통해 정보 과잉 환경에서 캐나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자원의 평가·수집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즉, 캐나다

36) Daniel J. Caron, *Meeting Challenges of the Future From Reflection to Action*, LAC, 2013.

사회를 반영하며 서로 관련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유산을 협력하여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LAC의 소장 컬렉션에 대하여 어떤 소장 컬렉션이 사회의 어떤 양상과 관련이 있는지, 소장 컬렉션 간에 중복되는 기록이 있는지, 혹은 다른 기관의 컬렉션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더 의미 있는지 결정하는 검토도 가능하다. 이러한 협력모델은 캐나다의 지속적 가치를 갖는 정보자원의 수집과 집단기억의 형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Whole-of-Society 접근법에 대한 구체적인 문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LAC의 주요한 업무계획이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계획 및 우선과제에 대한 보고서’와 ‘조직성과보고서’, 그리고 LAC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재된 컨퍼런스 발표문에 기술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 시점에서 아쉬운 것은 Whole-of-Society 접근법의 개발이 언제 완료될지 확실치 않아 초안에 그치는 수준의 연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법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실무적인 국가의 평가 방법론으로서 개발되고 있고, 사회상의 반영이라는 명제하에 정부기록과 민간기록을 아우르는 평가·수집 모델로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태일을 통해 LAC에 요청하여 받은 Whole-of-Society 접근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³⁷⁾를 중심으로 사회이론을 적용하여 해석해보았다.

거시평가방법론이 기든스(Anthony Giddens)의 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에 기반을 두었던 것처럼 Whole-of-Society 접근법도 이와 함께 도메인분석 모델과 네트워크 이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각 요소들이 그 작동 원리이다.³⁸⁾ 이론상의 요소들을 기록이 갖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

37) LAC, *12653 Approved Brief WoSA Explanation*, LAC, 2014.

38) 사회이론의 적용여부는 다음에서 알 수 있다. Terry Cook, “Macroappraisal in Theory and Practice: Origins, Characteristics, and Implementation in Canada, 1950–2000”, *Archival Science* Vol.5, 2005; LAC, “*Integrity and Authenticity: Is Digital more Challenging than Paper?*”, LAC, 2011; Brien Brothman, “Perfect present, perfect gift:

의 기준이 무엇이나는 물음의 답에 배치하고자 하였다.³⁹⁾

이상에서 소개서라고 언급한 문건은 2014년 8월에 LAC에 이메일로 요청하여 받은 것으로, Whole-of-Society 접근법의 개발 목적과 평가·수집 기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첫째, 데이터를 획득하고 디지털 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둘째, 투명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하여, 셋째, 어떤 자원을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설명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기록유산을 모으고, 보존하고, 이용가능하게 하기위한 기록유산 커뮤니티 간의 광범위한 협력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Whole-of-Society 접근법에서는 사회를 영역(Domain)으로 분류한 후,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를 ‘담론(Discourse)’, ‘행위자(Actor)’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식별되거나 이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원을 ‘정보자원(Information Resources)’라고 부르며 이것이 수집하는 대상이 된다.

먼저, Whole-of-Society 접근법은 사회를 영역과 하위영역으로 분류한다. 사회학에서의 영역분석(Domain Analysis)은 제임스 스프래들리(James P. Spradley)가 제안한 자료분석법인데, 이는 수집된 질적 연구자료들이 갖는 공통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범주화 시켜 묶는 방법이다.⁴⁰⁾ 먼저 네 가지 최상위 영역을 선택했다. 이들은 Whole-of-Government의 4개 영역과 동일하게 경제, 사회, 국제, 정치(정부)부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위영역은 일반적인 주제부터 특정한 주제까지 세분화된다. 이 네 가지 영

finding a place for archival consciousness in social theory”, *Archival Science* Vol.10(2), 2010; ICA, *ICA Annual Professional Conference Paper*, ICA, 2011; Daniel J. Caron and Richard Brown, “Appraising Content for Value in the New World - Establishing Expedient Documentary Presence”, *The American Archivist* Vol.76(1), 2013; LAC, *12653 approved brief WoSA Explanation*, LAC, 2014.

39) 다만 이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학적 개념들은 Whole-of-Society 접근법을 해석하기 위해 적용하며, 각 학자들과 그들의 이론을 심도있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40) 제임스 P. 스프래들리, 『참여관찰법』, 시그마 프레스, 2006.

역 내에는 경제와 금융, 거버넌스, 환경, 예술과 문화와 같은 행위자에 의한 사회적 담론을 찾을 수 있는 많은 하위영역이 있을 수 있다.

Whole-of-Society 접근법의 첫 번째 요소는 사회적 담론(Societal Discourses)이다. 보통 담론을 이야기할 때, 담론이라는 단어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사회담론, 정치담론, 문화담론 등 ‘어떤 영역의 담론’이라는 형태로 사용한다. 그리고 일방적이고 확정지어진 주장이 아닌 서로 다른 논지를 갖고 오가는 주장의 전체를 담론이라고 칭한다. 담론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이론가는 푸코인데, 푸코는 담론이 다양하게 얽힌 층위에서 사회적 실재와 사건들을 형성한다는 일종의 ‘구성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특히 담론이 주체와 자아, 사회관계와 지식의 체계를 형성하는 방식과 과정에 주목했다.(이기형, 2006)⁴¹⁾ 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사회적 현상이나 사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히거나 논지를 갖는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사회의 완전한 기록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담론들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든, 그 이상이든지 간에 모두가 포함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이러한 푸코의 시각에서 LAC는 당대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이때 여기서의 상호작용을 ‘사회적 담론’으로 칭했다. 사회적 담론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영역의 하위 영역으로 환경보호 또는 노사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나 목적에서 발생하는 기록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이다. 행위자는 사회담론이나 당대의 이슈를 형성할 때, 서로 다른 역할에 의해 분류한다. 기록을 생산하는 생산자(Creator), 관련된 사건이나 이슈를 기록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Researcher), 기록을 배포하거나 출판하는 전파자(Disseminator)가 그것이다. 그런데 사회 행위자가 무엇인가, 이들이 왜 기록화의 요소가 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네트워크 이론을 이

41) 이기형,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3), 2006.

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이론은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작용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에서 사회네트워크 이론은 사회구조를 분석하는 이론으로 사회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즉 행위자와 행위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네트워크 이론은 기든스의 구조화이론과 연관이 있다. 구조화이론은 기존의 구조주의나 기능주의에서 사회의 구조와 기능이 행위자의 행위를 결정한다는 시각을 비판한다. 구조에 의해 행위자들의 행위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행위자들의 행위에 의해 구조가 변화하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사회의 주요한 구성요소 간의 상호관계성을 주장했다.⁴²⁾

보통 네트워크 이론에서의 행위자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의 경우 행위자에 비인간을 포함시킴으로써 행위자의 범위를 확장시켰다.⁴³⁾ LAC는 캐나다의 2대 총리인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공공안전부(Public Safety Canada), INM운동(Idle No More 운동)⁴⁴⁾의 예를 들며 사회행위자는 개

42) 앤서니 기든스, 황명주 외 역, 『사회구성론』, 간디서원, 2012.

43)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은 1980년대에 프랑스의 미셸 칼롱과 브루노 라투르, 영국의 존 로가 개발한 이론인데, 행위자를 인간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을 마치 인간처럼 의지를 가진 행위자로 규정하여 현대의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이론이다. 브루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역, 『인간·사물·동맹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이음출판사, 2010.

44) 실제로 LAC는 최근 INM운동과 키스톤 XL 원유 파이프라인(Keystone XL pipeline project) 두 가지 이슈에 대하여 블로그나 트위터의 정보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웹 하베스팅(Web harvesting)이라는 디지털 수집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바 있다. INM운동은 최근 캐나다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인디언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 환경을 보전하자는 시위이며, (<<http://blog.daum.net/ees001/187>> [인용 날짜: 2014. 10. 11]) 키스톤 XL 원유 파이프라인 시위 운동은 캐나다 앨버타와 미국 걸프 해안을 연결하는 ‘키스톤 XL 원유 파이프라인(Keystone XL pipeline project) 건설 계획에 대한 반대시위였다. 이 사업은 총연장 1천 700마일(2천 736 km)의 70억 달러짜리 건설 프로젝트다. (<<http://www.jejuori.net/?mod=news&act=articleView&idno=146228>> [인용 날짜: 2014. 10. 12].

인이 될 수도, 법인이 될 수도 혹은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힌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개인이든, 부처이든, 사건이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힘을 갖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LAC에서는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의 중심이 되는 행위자(Agency)와 구조(Structure), 그리고 사회가 존재하는 시대나 장소,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나 사건 등을 모두 행위자(Actor)로 규정했다. 사회의 주요한 구성요소들을 주체로 하여 사회의 기록화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주요한 사회적 행위자는 사회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들이 바로 LAC가 기록화하고자 하는 주체들이다.

3. ‘Whole-of-Society 접근법’에 따른 평가·수집 프레임워크

1) 평가·수집 절차와 방법

Whole-of-Society 접근법에서는 사회적 담론과 행위자를 분석하여 캐나다 사회를 기록화하고 있는, 다시 말해 이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자원(Information Resources)을 식별한다. 정보자원은 사회행위자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회행위자나 사회담론에 대해 다른 사회 행위자 또는 자원데이터베이스, 정책, 서한과 같은 출처 등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LAC에서 밝힌 평가·수집 결정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먼저 평가기준은 3가지이다. 첫 번째로 사회(Society)이다. 사회라는 기준을 통해 캐나다 사회의 다양성을 기록화할 것과 캐나다 국민이 기록을 이용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효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록평가를

할 때 기록하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맥락에 정보자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동시에 식별된 정보자원이 사회담론을 기록화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요성(Significance)이다. 사회발전과 정체성, 문화, 가치,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정보자원을 포함하는 기록유산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기록평가는 반드시 식별된 담론, 이슈, 하위영역 내에서 기록화 할 정보자원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중요성(National significance)이다. 기록평가에 있어 과연 대상이 되는 기록들이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보자원, 사회행위자, 담론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자원이 캐나다 연방, 사회행위자나 담론을 기록화 했는지, 주요 사회행위자가 연방이나 국가단위에서 영향력을 갖는지, 그리고 담론이 사회의 발전에서 주요 이슈나 사건을 기록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집정책의 기준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적합성(Suitability)이다. 기록유산 수집 주체에 있어 LAC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 특정 정보자원을 수집하는 데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기준이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수집한 기록은 보존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집, 보존, 이용의 전 과정에 걸쳐 소요되는 비용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가능한 수집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풍부함(Sufficiency)이다. 기록화하고자 하는 목표에 적절하게 양질의 캐나다 기록유산을 수집하여 국민의 이용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수집과정을 거쳐 완성된 기록화 성과는 사회 내의 인간의 활동, 활동과정, 사회적 담론 간의 의미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Whole-of-Society 접근법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이 접근법의 핵심

은 기록유산형성에 책임이 있는 기관 간의 협력이다. 캐나다 전역에 존재하는 아카이브즈, 도서관, 연구협회 등 소위 말하는 ‘기록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LAC의 주도하에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협력체는 PCDHN으로 대표된다. 2012년 11월에 오타와에서 개최된 범캐나다 기록유산 포럼⁴⁵⁾이 PCDHN의 첫 번째 포럼이었다. 아카이브즈, 도서관과 같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과제에 동의했다. 첫 번째는 아날로그 소장자원의 협력적 관리이다.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아날로그기록유산 중 그간 관리되지 않고 있던 캐나다 사회와 관련성이 적은 것을 처분하고 관련성이 높은 것을 식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PCDHN은 메타데이터 간의 연계, 즉 LOD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적인 기록유산 수집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는 결국 협력체계 구축의 완성이라 볼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메타데이터가 핵심적이다.

이때 적용하는 메타데이터 요소, 즉 Whole-of-Society 메타데이터 요소(이하 WoS 메타데이터 요소라 칭한다)는 앞서 살펴본 평가대상들인데, 이는 곧 다음 절에서 살펴볼 ‘Out of the Trenches’ 프로젝트에서 매개체로 사용된다. 이는 기록평가의 기준이 곧 메타데이터로 작용함으로써 평가와 수집이 일원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수집되어야 하는 기록유산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시에 수집된 기록유산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데이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LAC에서 밝힌 WoS 메타데이터 요소는 <표 2>와 같다.⁴⁶⁾

45) Pan-Canadian Documentary Heritage Forum, November 5-6, 2012, Delta Ottawa City Centre, 101 Lyon Street, Ottawa, ON.

46) LAC, “Integrity and Authenticity: Is Digital more Challenging than Paper?”, *ICA Annual Professional Conference*, Toledo, Spain, 2011.

〈표 2〉 Whole-of-Society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요소	내용
인물(People)	사건과 관련 있는 인물이나 예술가, 작가, 정치인, 연예인 같은 속성 값
직위(Position)	장관, 대통령 CEO, 소유자, 직원 등 조직 내의 역할
조직(Organizations)	정치, 경제, 정부 사회 부분의 개체들
사건(Event)	전쟁, 기념일, 자연재해, 정치적 사건
장소(Locations)	표준화되거나 비표준화된 장소
Era(시대)	세기, 십년단위 구분, 각 연도와 같은 공식적인 시대구분과 대공황, 빅토리아 여왕시대, 에드워드 7세 시대와 같은 사건과 관련 있는 시대구분
사회영역(Social Domains)	경제, 사회, 국제, 정치 영역 내의 하위 영역인 보건, 군, 과학, 환경 등

이상의 메타데이터 요소는 평가 요소로 언급한 네 가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어떠한 ‘영역’에서 논의되었던 ‘사회적 담론’ 내에 존재하는 인물, 직위, 조직, 사건, 장소, 시대, 즉 기록의 생산과 맥락을 나타내는 ‘사회적 행위자’가 반영되어 있는 ‘정보자원’을 수집함과 동시에 이를 메타데이터 요소로 제시함으로써 관리와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 중 인물, 직위, 조직은 아카이브즈, 도서관, 박물관에서 각각 사용하는 메타데이터의 전거요소라 할 수 있으며 사건, 장소, 시대는 아카이브즈와 박물관에서는 생산 맥락 또는 기록물의 주제, 도서관에서는 도서의 주제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의 전거 또는 기술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메타데이터의 매핑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함으로써 통합적 관리와 이용을 위한 LOD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그간의 기록평가·수집 행태가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수행되었다면 Whole-of-Society 접근법에 의해서는 메타데이터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의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기록평가·수집이 가능해진다. 각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공공영역, 민간영역 모두를

아우르는 시스템에 의한 자동적인 기록평가·수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간 물리적 장소에 모아 둔다는 개념의 물리적 수집을 벗어나 의미와 맥락 기반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수집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PCDHN의 역할은 캐나다 기록유산기관들에 공통된 메타데이터를 연결하는 국가적 차원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국민이 기록유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캐나다에서는 기록유산의 협력적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LOD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LAC는 WoS 메타데이터 요소의 개발에 있어 LOD에 주목했는데 이것이 바로 PCDHN을 통해 2012년에 수행한 'Out of the Trenches'라는 파일럿 프로젝트이다.⁴⁷⁾ LOD는 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처음 제안한 것이다. 이는 링크드 데이터⁴⁸⁾와 개방형 데이터⁴⁹⁾의 핵심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링크드 데이터 발행원칙에 맞추어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⁰⁾ LOD는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설명하고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를 연결한 후 이것을 공개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데이터와 다시 연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를 의미한다.(강민아 외, 2013)⁵¹⁾ 서로 다른 정보원에서 발행된 데이터들은 서로 연결되고, 필요한 데이터 간의 조합과 질

47) 이 파일럿 프로젝트의 시연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qd46-uEI-C4>) [인용 날짜: 2014. 10. 12].

48) 구조화된 데이터를 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행된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보다 유용한 데이터 활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다른 정보원(source)에서 발행된 데이터들은 서로 연결되고, 필요한 데이터 간의 조합과 질의가 가능함. 『링크드 오픈 데이터 국내 구축 사례집』,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49)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재설계, 재생산할 수 있는 데이터, 위의 글.

50) 위의 글.

51) 강민아 외, 「LOD를 이용한 학술 데이터 공개 방안 연구」, 『한국정보과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3.

의가 가능하게 된다.

LAC는 아카이브즈, 도서관, 박물관을 LOD의 구축 주체로 상정하고 ‘캐나다 국민에 의한, 캐나다 국민을 위한, 캐나다의’ 기록유산 디스커버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Out of the Trenches’ 프로젝트를 개념증명 차원으로 수행함으로써 가능성을 시험했으며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았다. 다음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기록유산의 평가·수집 구현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Out of the Trenches’ 프로젝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2) ‘Out of the Trenches’ 프로젝트 사례

‘Out of the Trenches’ 프로젝트는 시맨틱 웹을 기반으로 각 기관이 갖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선정하여 집합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메타데이터에 기록평가·수집 구현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캐나다 해외원정군(Canadian Expeditionary Force, 이하 CEF라고 칭한다) 군인들과 그들에 관한 기록 정보를 LOD로 발행한 것이다.

여기에서 PCDHN은 기록평가 시 Whole-of-Society 접근법에 의해 식별된 행위자, 사건, 시대, 장소, 그에 따른 정보원, 다시 말해 기록물의 요소들을 LOD로 표현하였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각 기록유산 간의 협력적 접근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개방하되 그 맥락과 의미를 잃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먼저 이 프로젝트의 주제, 즉 Whole-of-Society 접근법의 요소 중 ‘사건’은 1차 세계대전이다. 캐나다는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영국의 연방이 아닌 진정한 독립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기 때문에 캐나다 사회에서 1차 세계대전은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LOD를 통한 기록화의 영역(Domain)을 1차 세계대전으로 선택한 이유이다. PCDHN 과

트너들은 메타데이터 내에 나타나 있는 사람, 사건 등의 주제, CEF나 대대의 군인 등 인물의 소속, 전쟁포스터, 군가, 사진, 필름, 파노라마, 신문, 엽서 등과 같은 자원의 콘텐츠 유형을 통하여 캐나다 국민들이 탐색할만한 흥미있는 주제를 식별했다.⁵²⁾

제공하고 있는 기록유산, 다시 말해 Whole-of-Society 접근법에서의 ‘정보자원’이라 일컫는 것은 군가, 전쟁포스터, 뉴스기사 아카이브, 엽서, 전시기록, 군인들의 초상화, 그 당시의 문서들이며 이들을 LOD의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각 기록유산기관이 자원을 제공하면, LAC는 LAC가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으로부터 각 기관의 자원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다양한 미디어 형태의 디지털 자원을 식별하여 배분한다. 중심이 되는 것은 군가악보, CEF의 군인·대대 기록, 사진, 관련 있는 대대의 전쟁일지 등의 기록이 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자료로 전시 소설·시, 소리 녹음, 필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캐나다 군인의 초상화들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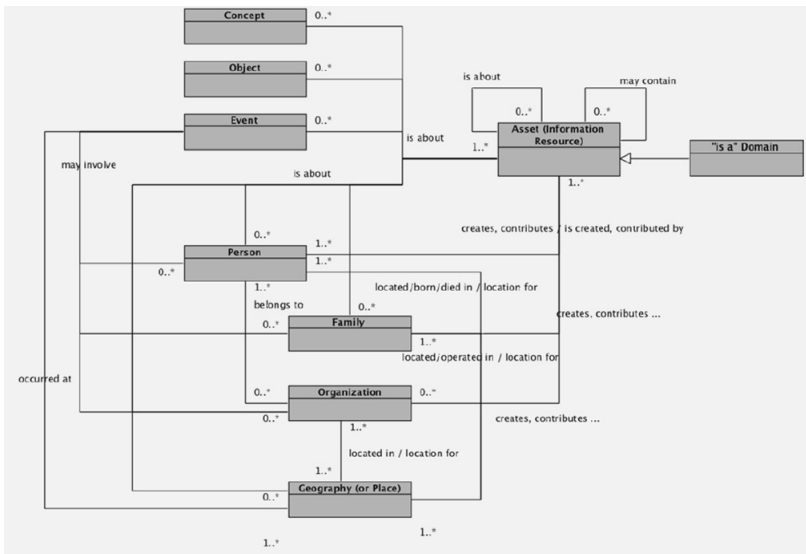
각 기관들이 다른 형태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에 대하여 PCDHN은 기록의 맥락에 필수적인 전거요소를 중심으로 ISAD(G), ISAAR(CPF), FRBR, CIDOC-CRM을 참조하여 요소를 추출하고 개념화하여 매핑한 다음 이들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RDF 트리플 구조로 만들어 LOD를 구축하였다.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록관리 도구이다. 메타데이터는 기록이 생산되게 된 맥락을 보존해주는 도구이며, 기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접근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또한 LAC에서 시도하고 있는 LOD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아카이브즈, 도서관, 박물관의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주목했다. 각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소장자원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상이하나 메타데이터

52) Pan-Canadian Documentary Heritage Network (PCDHN), *Linked Open Data (LOD) Visualization Proof-of-Concept Final Report*, PCDHN, 2012.

요소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것들이 많다. 따라서 메타데이터 요소를 통한 상호운용성이 확보 된다면 새로운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설계하지 않아도 메타데이터 간의 매핑을 통해 협력이 가능해진다. 명확히 하자면, 다음에서 살펴볼 메타데이터 모델은 기록유산에 대한 기술요소로서가 아니라, 각 기록유산에 대한 기술표준 중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요소를 상호 연결시킴으로써 기록을 수집하는 접근점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2>는 PCDHN이 제공하는 ‘Out of the Trenches’ LOD 프로젝트의 메타데이터 모델이다.

<그림 2> PCDHN 메타데이터 모델



* 출처: Linked Open Data (LOD) Visualization Proof-of-Concept Final Report

WoS 메타데이터 요소는 인물(People) · 직위(Position) · 조직(Organizations) ·

사건(Event) · 장소 (Locations) · Era(시대) · 사회영역(Social Domains)인데, 이상의 그림에서는 이를 개념(Concept) · 대상(Object) · 사건(Event) · 인물(Person) · 가문(Family) · 조직(Organization) · 장소(Geography or Place) · 정보자원(Asset or Information Resource) · 영역(Domain)의 요소로 나타내고 있다.

정보자원(Asset or Information Resource)과 영역(Domain)은 기록화 대상과 범위를 정의해주고 있으며, 개념(Concept) · 대상(Object) · 사건(Event) · 장소(Geography or Place)는 기록유산의 내용을⁵³⁾, 그리고 인물(Person) · 가문(Family) · 조직(Organization)은 기록유산의 전거, 즉 생산 맥락과 내용 모두에 해당하는 요소이다.⁵⁴⁾ 인물 · 가문 · 조직이 그러한 이유는 앞서 확인 했듯이 이 메타데이터 모델은 기록유산을 협력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전 사회의 기록화를 추구하고자 개발된 것이므로, 인물 · 가문 · 조직이 기록유산의 생산자일수도 있으며 기록유산이 나타내는 ‘담론’와 관련 있는 요소일수도 있다.

이상의 그림은 ‘정보자원(Asset or Information Resource)은 어떠한 영역(Domain)을 가진다.’는 것에서 시작하여 RDF의 트리플 구조를 통해 의미적으로 연결해주고 있다. 먼저 기록유산의 형태라 할 수 있는 정보자원 간의 관계(is about, may contains)를 설명하며, 정보자원이 곧 개념(Concept) · 대상(Object) · 사건(Event)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is about)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보자원은 인물(Person)이나 가문(Family) · 조직(Organization)에 의해 생산되었거나(create, is created), 동시에 이들과 장

53) IFLA 전거레코드의 기능요건 및 번호배정 실무진, MGlen E. Patton 저, 김태수 역, 『전거데이터의 기능요건(FRAD) 개념 모형』, 2012.

54) 여기서의 개념(Concept)은 추상적 관념이나 생각, 지식이나 학문분야, 사고체계, 이론과 과정, 기법 등을 말하며 대상(Object)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이나 무생물, 인간의 창조물로서 고정되었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 움직이는 물체, 현존하지 않는 사물까지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기록’은 아니지만 도서, 박물관을 포함하는 ‘기록유산’의 통합적 수집을 위한 요소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할 수 있다.

소(Geography or Place)에 대한 내용(is about)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내용은 정보자원에서의 ‘인물’에 기록의 ‘생산자’와 도서관과 박물관의 자료의 ‘등장인물’이나 ‘저자’ 혹은 ‘제작자’를 모두 포함한다.

사건(Event)은 인물(Person)·가문(Family)·조직(Organization)을 포함하며(may involve), 어떠한 장소(Geography or Place)에서 발생한다(occurred at). 인물(Person)은 가문(Family)과 조직(Organization)에 속한다(belongs to). 또한 인물(Person)은 어떤 장소(Geography or Place)에 대하여 인물이 살았고, 태어났고, 죽거나 이를 위한 장소이며(located/born in/died in/location for), 가문(Family)의 경우 어떤 장소(Geography or Place)에 살았고, 운영되고 있거나 이를 위한 장소이다(located/born in/died in/location for). 또한 조직(Organization)은 어떤 장소에 위치하고 있거나, 이를 위한 장소(located in/location for)이다.

〈표 3〉 메타데이터 요소별 비교

PCDHN	WoSM ⁵⁵⁾	ISAD(G)	ISAAR(CPF)	FRBR	CIDOC-CRM
인물	인물 직위	생산자명	개인명 직위	개인	E39 E21
가문	조직		가문명	단체	E74
조직			단체명		E40
사건	사건	-	-	사건	E2 E5 E7
장소	장소	-	장소	장소	E53 E27
-	시대	-	-	-	E4 E49 E50

이상의 〈표 3〉은 PCDHN 메타데이터 요소, WoS 메타데이터 요소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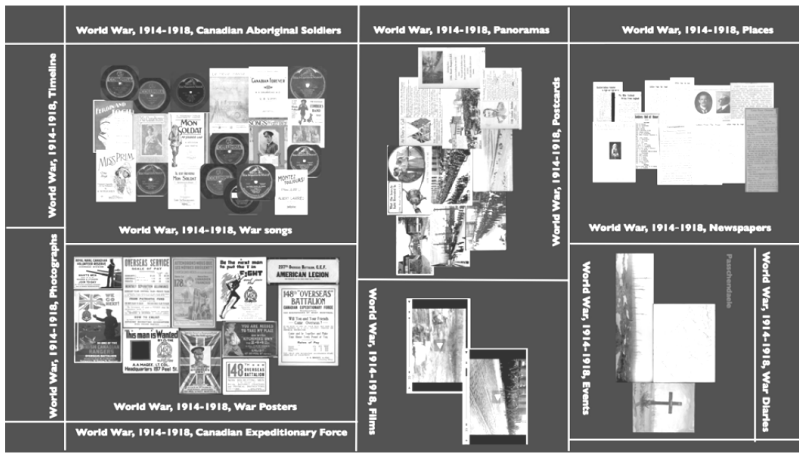
55) Whole-of-Society Metadata.

연계되는 ISAD(G), ISAAR(CPF), FRBR, CIDOC-CRM 기술요소들을 표기한 것이다. ISAD(G), ISAAR(CPF), FRBR, CIDOC-CRM의 요소 중 개념(Concept) · 대상(Object) · 사건(Event) · 인물(Person) · 가문(Family) · 조직(Organization) · 장소(Geography or Place)과 매핑되는 것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관련 있는 기록유산, 즉 정보자원(Asset or Information Resource)으로의 안내가 가능하다. 이 중 ISAD(G), ISAAR(CPF)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기록과 연계할 수 있는 요소들은 사건(Event) · 인물(Person) · 가문(Family) · 조직(Organization) · 장소(Geography or Place)이다. 먼저 ISAD(G)의 생산자명은 PCDHN 메타데이터 요소인 인물 · 가문 · 조직, 그리고 WoS 메타데이터 요소인 인물과 직위와 연계된다. 다음으로 PCDHN 메타데이터 요소인 인물, WoS 메타데이터 요소인 인물과 직위는 ISAAR(CPF)의 개인명과 직위와 연계되며 PCDHN 메타데이터 요소인 가문과 직위, WoS 메타데이터 요소인 조직은 ISAAR(CPF)의 가문명과 단체명으로 연계된다. 또한 공통적인 PCDHN 메타데이터 요소와 WoS 메타데이터 요소인 장소는 장소와, 사건 요소는 배경정보와 연계될 수 있다.

FRBR의 경우 WoS 메타데이터 요소의 시대를 제외하고 개체의 2집단과 3집단의 모든 요소들은 정확히 연계된다. CIDOC-DRM의 요소 중 연계되는 것은 PCDHN 메타데이터 요소의 인물, WoS 메타데이터 요소의 인물과 직위는 E39과 E21, PCDHN 메타데이터 요소의 가문과 조직, WoS 메타데이터 요소의 조직과는 E74와 E40, 공통적 요소인 사건과는 E2(Temporal Entity: 제한된 시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현상), E5(Event: 문화/사회/물리적 체계의 상태 변화), E7(Activity: E39 Actor의 인스턴스가 의도적으로 수행하여 기술된 문화/사회/물리적 체계의 상태 변화를 일으킨 행위), 장소와는 E53(Place: 공간, 특히 순수 물리학에서의 지구 특정 표면에 대한 규모), E27(Site: 육지나 해저의 일부분), WoS 메타데이

터 요소의 시대와는 E4(Period: 시공간으로 둘러싸인 일관된 현상이나 문화적 현상의 집합), E49(Time Appellation: 특정 E52 Time-Span을 지시하는데 특징적으로 이용된 모든 형식의 명칭이나 부호(역사적 기간이나 일자 등), E50(Date: E49 Time Appellation의 구체적 형식)과 연계된다.⁵⁶⁾

〈그림 3〉 사건-시대-요소/유형별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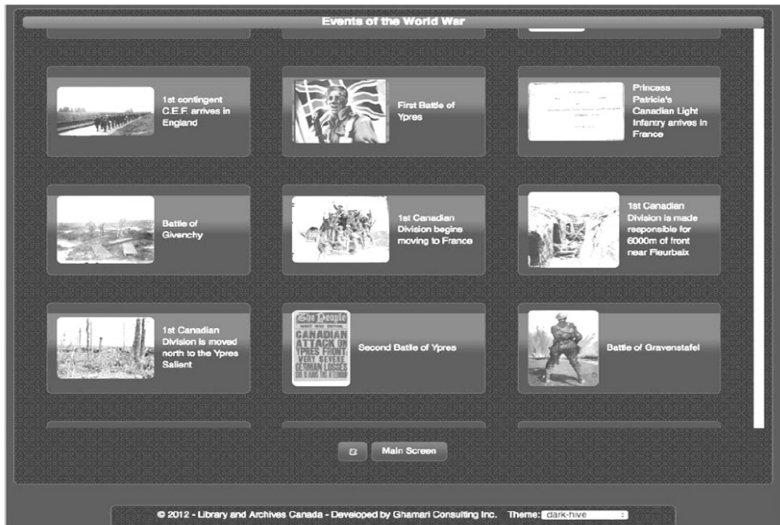
위의 〈그림 3〉은 1차 세계대전(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시대-요소 혹은 사건-시대-기록유산 유형별로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의 〈그림 4〉와 〈그림 5〉는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예시이다.

56) CIDOC-CRM 요소는 다음의 연구보고서를 참고, 류병중 외,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자원관리시스템 1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11.

〈그림 4〉 인물별 시각화



〈그림 5〉 사건별 시각화



이 프로젝트는 PCDHN 파트너 중 일부 기관이 참여한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규모도 매우 작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는 공통된 메타데이터 요소, 즉 WoS 메타데이터 요소를 갖고 있는 것들을 연계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이용자 입장에서 기록유산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온톨로지 구축을 통한 LOD의 발행은 도서관 분야에서 비교적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명이나 지명, 주제명 등이 온톨로지 형태로 구축되었으며 FRBR과 CIDOC-CRM은 이미 FRBRoo라는 형태로 온톨로지 구축이 시도된 바가 있다.⁵⁷⁾ ‘Out of the Trenches’ 메타데이터 모델이 갖는 한계도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비롯되는데, 순수한 기록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구축한 온톨로지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온톨로지를 구축할 과제가 남아있다.

4.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1) 사건·인물 기반 기록유산 평가·수집 가이드라인 개발

LAC는 도서관, 기록관이 통합된 형태로 도서, 기록, 박물관 상이하게 구분 짓지 않고 ‘정보자원’ 혹은 ‘기록유산’ 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평가를 관리와 이용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현재의 디지털 환경을 기회로 삼아 Whole-of-Society 접근법을

57) FRBRoo는 FRBR은 기존의 FRBR 모형의 서지개체와 관계를 CRM의 개념과 속성에 맞게 분석하여 구축한 연계 온톨로지이다. 박지영, 「문화유산 자원 통합 활용을 위한 CRM 기반 FRBR 응용 온톨로지 적용패 관한 연구: FRBRoo를 중심으로(object-oriented FRBR)」,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2008.

개발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국가적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디지털기록유산의 평가와 수집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일종의 방법론이다. 이 장에서 캐나다의 Whole-of-Society 접근법을 국내 기록유산 평가·수집에 적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실행을 위한 전제기반 마련방법을 제안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평가·수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만약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화 전략을 수립하면 각각의 컬렉션이 모여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기록 컬렉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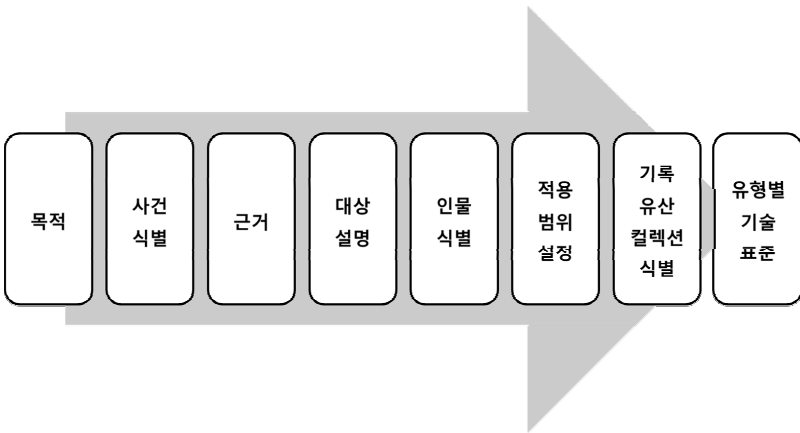
캐나다 Whole-of-Society 접근법의 요소를 기반으로 사무엘스의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영국 TNA의 OSPs를 참고하여 평가·수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았다.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OSPs는 거시적 차원의 평가이론의 선상에 있다. 이들을 참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큐멘테이션 전략에서도 사회의 기록화를 위한 다양한 기관의 협력적 수집을 강조하였다. 특히 수집에 있어 같은 공간에 모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역시 핵심은 데이터 공유·연계를 통한 의미적 수집이므로 기관 간의 협력이다. 둘째, OSPs는 기록의 주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잘 나타나도록 설명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은 OSPs와 유사한 순서로 내용을 전개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대상이 되는 사건과 인물에 대한 양상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기록유산을 소장하는 기관과 컬렉션을 명시한다. Whole-of-Society 접근법상에서 기록화 대상으로 삼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상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Born-Digital’과 ‘Digitization’ 두 가지 유형의 디지털 기록유산을 기술하는 표준 여부를 명시하여 추후 온톨로지 구축과 RDF 발행을 통한 LOD의 구현 기반을 다지도록 유도한다. 즉, 캐나다 Whole-of-Society 접근법상의 ‘영역’, ‘담론’, ‘행

위자', 그리고 이들에 대한 내용이나 전거를 포함하는 '정보자원'과 '정보 자원'의 출처를 식별한 후 LOD로 수집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한다.

가이드라인의 작성과 실행의 주체는 국가기록원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률 시행령이라 칭한다)에 의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기록화에 책임이 있다. 더욱이 전국가적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국가의 정책적 지지를 통해 최소한의 강제성을 부여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주제별 검색에서 각 주제별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실행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한번 작성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 전 사회적 기록화를 위하여 기록유산과 소장기관을 식별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완성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노력과 발굴이 요구된다. 다음 <그림 6>은 순서 도식도이다.

<그림 6> 사건·인물 기반 평가·수집 가이드라인 전개 순서



가이드라인상의 순서는 총 8단계를 거친다. 1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주제를 명확히 한다. 2단계부터 5단계는 기록화 할 대상과 관련이 있다. 2단계는 기록화할 사건을 식별하는 것인데, 이 가이드라인에서 상위레벨의 기록화 대상으로 사회의 '행위자'로서의 '사건'을 선택하였다. 3단계는 법률상에서 영구로 지정하고 있는 기준들을 들어 법률상의 근거를 제시한다. 4단계에서는 최상위 행위자인 사건 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인물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기술한다.

5단계부터 마지막 단계는 디지털기록유산의 의미적 수집을 위한 준비 절차이다. 5단계에서는 전거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즉 인물을 식별함으로써 메타데이터 요소 추출을 통한 디지털기록유산 간의 연계를 위한 사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6단계에서는 시기와 관련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기록화의 범위를 정한다. 이때의 아카이브즈뿐만 아니라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기록유산기관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7단계에서는 6단계에서 정한 기관과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유산을 식별한다. 마지막으로 8단계는 앞서 강조했던 '의미적 수집'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기관이 준수하는 표준을 식별함으로써 추후 매핑 규칙 개발을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한다. 메타데이터 스키마 간의 매핑 규칙이 개발되어야만 LOD를 통한 연계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내용평가를 거친 모든 유형의 기록유산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수집되고, 궁극적으로 메타데이터를 통해 기록유산 자체나 기록유산의 소장처로 이용자를 안내할 것이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의 실행을 위해서는 전체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한계점을 점검하고 선행과제를 제안한다.

2) 가이드라인 실행을 위한 선행과제 제언

첫 번째, 기록평가의 목적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록 평가는 법상의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책정하게 되는데, 보존기간의 재책정 결정을 통해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⁵⁸⁾ 그런데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기준들에는 ‘중요성’이라는 기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다소 모호하다. 그리고 평가가 갖는 목적이 기록물의 ‘선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가기록원이 평가의 의미를 ‘현재 및 미래 세대에게 정부의 활동에 대한 역사를 전승하는 행위의 근간’이며 ‘현재 및 이전세대의 과거 경험의 결정체인 지식자원을 후대에 전승하는 절차’라고 했지만⁵⁹⁾ 현행 제도하에서의 선별은 그 의미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또한 민간기록에 대한 수집은 사회의 기록화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 [별표 1]에서 25개의 기준들을 적용하여 선별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록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기능분류체계(BRM; Business Reference Model)와 이와 연동되어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는 기능기반이라는 점이기에 때문에 기관의 기능별로 평가·선별된다. 기록관리기준표는 기타공공기관과 민간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도 주제기반의 기록화에 한계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의 경우, 기본 평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정이 미비하며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다.⁶⁰⁾ 또한 중앙행정기관별로 각 기능에 한정하고 있어 187여 개의 정부산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의 적용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행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민간기록을 아우르기

58)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개정 2010.5.4).

59) <<http://www.archives.go.kr/next/manager/narration.do>> [인용 날짜: 2014. 11. 11].

60) 필자의 경우에도 2014년 4월 2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받았다.

에는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래의 <표 4>에 표기되어 있는 5개의 기준은 민간기록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거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표 4> 기록물의 영구보존 기준

보존 기간	기준
영구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4.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6. 인문·사회·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6.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관련 기록물
	2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먼저 3호와 5호에서 역사경험이나 역사자료라는 단어는 다소 위험한 면이 있다. 보통 역사적 사건이라고 일컬을 때에는 후대에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현재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후대에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판단 주체를 명시하기보다는 영국 TNA의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기록화 할 대상을 정하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현행 제도상에서도 평가·폐기심의회 개최 시 처리과 담당자, 부서장, 아키비스트, 외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상의 기준에 의거하여 기록 평가를 수행할 때는 사전에 아키비스트의 심사와 공공 컨설팅에 의한 심층적인 분석·자문의견이 담긴 서한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의 경우 평가·폐기 심의를 거치지 않지만 법상에서 민간에까지 적용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의미

가 있다.

다음으로 4호의 의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치로서의 기록물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공 영역에서는 각종 증빙자료나 정책 자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많은 시민 단체나 민간 연구소에서 생산한 기록물들도 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장치는 건강증진과 환경보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단체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6호는 표현이 모호하다. 오명진(2012)⁶¹의 연구에서 기록화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를 사전에 수행하는데 이 때 신문, 방송, 인터넷, 국가의 중요기록, 연구동향을 지표로 활용할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다수 국민의 관심 사항이라는 표현 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해 줄 수 있다. 이상의 제언에 대하여 법이 공공기록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록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법령 제10장에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에 대한 사항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주체로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록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민·관 분야와 매체를 막론하고 적용가능한 평가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기록물에 내재한 가치를 통해 공동의 기억을 보존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기록을 통한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거나, 기록유산을 후대에 전승하겠다는 의식이 미약하다. 만약 국가 기록원이 주도하여 선진기록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평가·수집도구를 개발한다면 우리나라도 전국가적 기록유산형성을 통해 기록의 가치

61) 오명진, 「동시대 역사적 사건의 기록화 전략: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를 증대시키고 기록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민간 아카이브즈의 양성이다. 민간기록에 대한 소재파악이나 이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없이는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기록에 대한 관리만 가능해질 뿐 우리 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중요한 기록물을 유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 아카이브즈를 양성하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에서 민간 아카이브즈 양성방안에 대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제도 마련을 중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착안한 제도의 신설을 제안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민간 아카이브즈 진흥법」(가칭) 제정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상의 작은도서관은 기존의 공공 도서관 성격의 도서관에 준하되, 국가가 아니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도서관을 말한다. 보통의 공공도서관이 100,000권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장서 1,000권은 매우 작은 규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민간 아카이브즈와 작은 도서관은 유사한 측면이 많다. 먼저 기록유산문화 진흥이라는 큰 목적하에, 기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상정하여 제외되는 기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일 수밖에 없는 민간 아카이브즈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재정적 측면이나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민간 아카이브즈에서 기록유산의 전 생애 주기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는 담당자들의 자격을 공공영역과 동일하게 기준을 마련해줌으로써 전문성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만 한다. 이 밖에도 대국민 홍보사업을 통해 민간 아카이브즈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거나 기록유산 수집이벤트를 통한 개인 소장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진흥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록물이 중요한 이유는 공공영역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기억'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

양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최소한 국가기록원에서 주제 분야로 제시하는 테마들에 대해서라도 민간에 산재되어 있는 주요 기록물들이 소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기록유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사건·인물 기반 평가·수집 가이드라인은 캐나다 Whole-of-Society 접근법을 근간으로 하며 디지털기록유산의 전국가적 수집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도서관계의 경우, 네트워크가 비교적 확고히 이루어져있다. 일례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23개 학·협회 등의 단체들과 협력하여 도서관 정책, 전국가적 도서관 현황, 동향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도서관연감’을 매년 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KERIS 공동목록과 같은 공동목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도 하다. 박물관의 경우에도 한국박물관협회에서 ‘한국박물관협회네트워크’라는 명칭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아카이브즈의 경우, 국내에 어떤 아카이브즈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국내 기록학계에서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올해 4월 한국기록물관리관 발간을 위한 아카이브즈 현황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⁶²⁾ 총 4회에 걸쳐 기록인메일링리스트를 통해 협조 공지를 하고 전국 약 1,100여개 공공 및 민간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률이 저조하여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⁶³⁾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유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이미 시도된 바 있다. 2004년 5월 13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관하여 ‘디지털유산보존에 관한 자문회의’의 첫 회의를 열고 국가기록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디지털

62) <http://www.gimeri.or.kr/DMR_mailingList/Mailing_View.asp?g_Idx=317&Page=1&sc=T&st=%EC%97%B0%EA%B0%90> [인용 날짜: 2014. 12. 2].

63)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 이메일로 문의하여 받은 회신 내용임.

유산' 보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합의했다.⁶⁴⁾ 그러나 후속 연구⁶⁵⁾가 수행되었을 뿐 '디지털유산보존에 관한 자문회의'의 후속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10년여의 시간이 지금도 다양한 영역에 걸친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기록유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먼저 국가기록원은 한국 기록관연감의 발간사업을 국가적 사업에 준하여 지원해야 한다. 한국 기록관연감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의 기획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 국가기록원의 지원이 없는 채로 사업이 잠정 종료되고 말았다. 만약 한국기록관연감이 발간된다면 이는 기록학계의 네트워크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전국기록인대회, 전국도서관대회, 전국박물관인대회를 아우르는 '전국기록유산대회(가칭)'와 같은 통합적 행사를 주최할 수도 있다. 전국단위의 행사가 아니고서는 기록유산 이해 당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전무하다. 따라서 '전국기록유산대회(가칭)'가 조직된다면 각 계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계의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지지도 함께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중 어느 한 곳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협력하여 각 계에 존재하는 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전국기록유산대회(가칭)'와 같은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기록유산의 통합적 관리·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각 계의 이해에 맞는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기억'을 수집하고 다양한 이용자들이 기록유산을 이

64) (http://www.nl.go.kr/pds/research_data/text/newsletter/200406/200406_sosig02.htm) [인용 날짜: 2014. 11. 04].

6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디지털유산 보존에 관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발주 용역보고서, 2004.

용하게 함으로써 기록유산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끝으로 LOD 구축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다. Whole-of-Society 접근법상에서 수집을 구현하는 도구로 LOD를 택한 이유는 LOD를 구축하게 되면 물리적 수집은 아니더라도 기록유산의 소재나 디지털화된 원문을 통합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어 기록화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의 말미에는 각 기관이 택하고 있는 기술표준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표준별 매핑 규칙을 개발하는 것에도 필수적이기에 LOD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 LOD에 대한 관심은 시맨틱 웹의 대두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최근 정부3.0 정책의 기제인 공유와 개방에 힘입어 LOD 구축이 정책적으로 지지받고 있다. 국내에서 링크드 데이터 발행의 네 가지 규칙을 준수하여 웹에 기존의 데이터를 변환하고 개방하여 정보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구축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⁶⁶⁾ 그 중 기록유산기관의 성격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먼저 기록학 분야로는 서울시(행정데이터)의 사례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 데이터에 가깝기 때문에 기록유산의 LOD 구축사례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⁶⁷⁾ 다른 분야에 비하면 기록학 분야의 LOD 구축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다만 기록학 분야에도 LOD와 관련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고 타 분야에서도 기록학 분야의 LOD 구축에 관심을 갖고 착수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에서 주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 LOD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몇 가지 노력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LOD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키비스트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주식회사 LIST는 ‘닥치고 Linked Data Party’라는 컨퍼런스를⁶⁸⁾ 통해 링크드 데이터에 대한 소개나

66) 『링크드 오픈 데이터 국내 구축 사례집』, 한국정보화진흥권, 2014.

67) 도서관 분야의 사례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학술정보), 국립중앙도서관(서지 데이터)이 있고, 박물관 분야의 사례로는 경기도(문화재·관광), 역사학 분야의 사례로는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가 있다. 앞의 글.

동향, 구축 사례를 공유하고 각종 토론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를 벤치마킹하여 기록학계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국내 기록관리환경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발주하거나 기록연구사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록학계의 LOD 구축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기록유산기관에서 준용하고 있는 표준들을 점검하여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각 표준에서는 기록유산에 대한 기술요소들을 정하고 있다. 공통적인 요소를 도출하고 LOD로 구축할 데이터 모델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각 표준별로 매핑 규칙을 개발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구축된 영역별 온톨로지는 기구축된 온톨로지와 함께 연계됨으로써 LOD를 통한 기록유산의 의미적 수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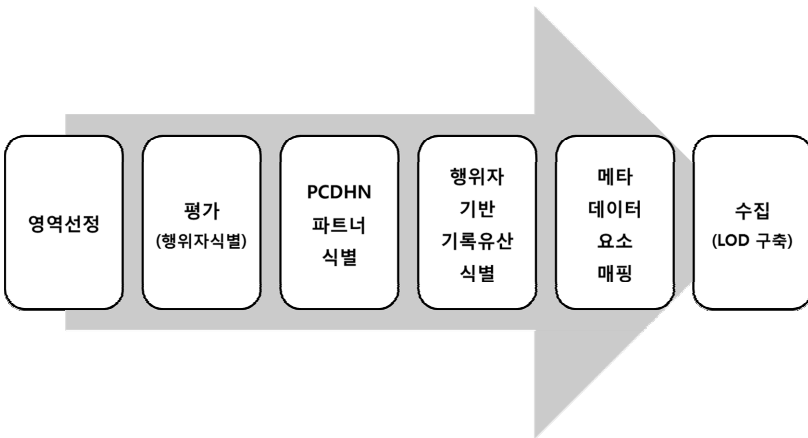
5. 맺음말

LAC의 Whole-of-Society 접근법의 목적은 토털아카이브즈 정신을 구현하고자 개발한 접근법이다.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이 모두 Whole-of-Society 접근법의 대상임을 확고히 하였으며, 정책 수행 과정에서 캐나다 전역의 아카이브즈, 도서관, 박물관 등의 기록유산기관 간의 협력을 핵심으로 삼고 궁극적으로 캐나다 국민의 기록유산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아래의 〈그림 7〉⁶⁹⁾은 Whole-of-Society 접근법의 전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68) 〈<http://dakchigo.kr/>〉 [인용 날짜: 2014. 12. 7].

69) 〈그림 12〉는 Whole-of-Society 접근법에 대한 문건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7〉 Whole-of-Society 접근법 수행 절차도



이 접근법은 첫째로 사회구성요소를 통한 기록의 선별을 위한 평가 방법이였다. LAC는 평가방법에 있어 이론적 요소를 취하고자 했는데, 거시평가방법론에 이어 Whole-of-Society 평가방법도 역시 사회이론에 기반을 두었다. Whole-of-Society 접근법상의 평가는 한편으로는 주제영역과 주제영역 내에서 핵심이 되어 반드시 기술해야만 하는 것들을 식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Whole-of-Society 접근법상에서 ‘어떤 기록이 후대에 전승되어야 하는가’라는 평가이론의 근본적인 물음의 답은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기록’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회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했고, 주요한 ‘행위자’를 식별하는 것에서 평가가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록유산들이 각각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의 상호운용성에 주목하였다. 각 기관이 취하는 메타데이터 요소와 매핑시킴으로써 LOD 방식으로 소장하고 있는 기록유산 간의 연결을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수집 방법이기도 하다. 결국, 평가요소였던 인물, 조직, 사건, 장소, 시대가 Whole-of-Society 메타데이터 요소로 치환됨으로써, 평가요소

와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한 자동적인 수집이 완성되는 것이다. PCDHN 파트너들은 각 요소의 값에 해당되는 행위자의 도출부터 LOD 구축까지의 전 과정에서 협력하여 캐나다의 대표적 영역과 사건에 대한 기록화 효과를 기대했다.

아카이브즈, 도서관, 박물관은 기록유산의 수집이나 접근성 제공이라는 중추적인 역할과 공통 목적을 갖는 기관이다. 특히 이들이 소장하고 있는 가치 있는 컬렉션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이용이 필수적인데, 기관의 사일로(Silo)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링크드 데이터의 기대효과의 배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국가기록원이 주도가 되어 공통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한 후 우리의 기록유산이 사일로에 갇혀있지 않고 이용됨으로써 기록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의 한계는 먼저 LAC의 새로운 평가·수집 방법인 Whole-of-Society 접근법의 구체적 내용이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Whole-of-Society 접근법은 여러 문건과 논문을 종합한 것이다. 더욱이 연구의 말미에까지도 LAC에서 적극적인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이렇듯 Whole-of-Society 접근법에 대한 초안적인 연구에 그치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 다음으로 가이드라인의 완성도나 완결성이 높지 않았고 실증하지 못하였다. 이 점은 개인 연구자의 한계이기도 했다. 기록유산을 식별하기에도 개인 연구자로서는 1차 조사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술 표준의 도입에 대한 추후 계획이나 현황들을 조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만약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기관들이 소관 기관들의 기록유산을 컬렉션별로 조사하고 표준의 준용여부도 점검한다면 이상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더욱 의미 있게 될 것이다.

‘기록유산’을 바라보는 캐나다의 시각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록, 도서, 박물관이 인간 활동의 산물이라 볼 때 이들이 통합적

으로 관리되고 이용될 수 있다면 전 사회적 기록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더욱 다양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유산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기록관리의 핵심으로 남아있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Whole-of-Society 접근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록유산의 식별, 기술, 수집에 이르는 많은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사회의 중요한 사건과 그와 관련한 행위자를 담고 있는 기록유산을 발견하여 새로이 기술하고, 이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수집하는 것에 이르는 총체적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현 시점에서 보면 Whole-of-Society 접근법은 신기루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론이나 법률, 혹은 표준은 이상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지향점이 되어 발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평가이론이 2000년대의 거시평가에 머물러 있었음을 미루어 볼 때, 이 연구가 캐나다에서 시도되고 있는 Whole-of-Society 접근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의 평가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것을 기대하며 Whole-of-Society 접근법 개발이 완성되는 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Model of Appraisal and Acquisition for Digital Documentary Heritage : Focused on 'Whole-of-Society Approach' in Canada

Pak, Ji-Ae · Yim, Jin Hee

The purpose of the archival appraisal has gradually changed from the selection of records to the documentation of the society. In particular,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velopments of the current digital technology and web have become the driving force that enables semantic acquisition, rather than physical on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ncept of 'documentary heritage' has been re-established internationally, led by UNESCO.

Library and Archives Canada (LAC) reflects this trend. LAC has been trying to develop a new appraisal model and an acquisition model at the same time to revive the spirit of total archives, which is the 'Whole-of-society approach'. Features of this approach can be summarized in three main points. First, it is for documentary heritage and the acquisition refers to semantic acquisition, not the physical one. And because the object of management is documentary heritage, the cooperation between documentary heritage institutions has to be a prerequisite condition. Lastly, it cannot only documenting what already happened, it can documenting what is happening in the current society.

'Whole-of-society approach', as an appraisal method, is a way to identify

social components based on social theories. The approach, as an acquisition method, is targeting digital recording, which includes ‘digitized’ heritage and ‘born-digital’ heritage. And it makes possible to the semantic acquisition of documentary heritage based on the data linking by mapping identified social components as metadata component and establishing them into linked open data.

This study pointed out that it is hard to realize documentation of the society based on domestic appraisal system since the purpose is limited to selection. To overcome this limitation, we suggest a guideline applied with ‘Whole-of-society approach’.

Key words : Archival appraisal and acquisition, Documentation of society, Whole-of-Society, Semantic acquisition, Digital environment, Linked Open Data